

나무 심는 설레이므로

박 영숙 본재단 이사장

나는 지난 주말 (3.31~4.1) 유한김벌리가 개최한 <2007년 남북공동 신혼 부부 나무심기>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24회째인 이번 나무심기에는 100쌍의 신혼부부와 북한 주민등 300명이 참가했다. 우리가 4년생 잣나무 6,000그루를 심은 곳은 금강산 자락인 북강원도 고성군 금천리에 자리한 30여년전 산불로 벌거숭이가 된 야산이다.

심은 나무는 30cm 에 불과한 어린 묘목이었지만 언젠가는 민둥산을 푸르게 할 것이며 맺은 열매는 그곳 주민의 삶을 살찌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흙을 다졌다.

나는 작년 이맘때도 신혼부부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심은 나무는 6년생 밤나무였으며 심은 곳은 같은 금천리에 위치한 잣나무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95%의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서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밤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심은 17그루의 밤나무도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중에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 그것도 험벗은 북녘땅에 유실수를 심는다는 것은 가슴 뿌듯하고 설레이게 하는 일이다. 내가 정성들여 심는 나무가 자라서 언젠가는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내년에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고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의 5월 집중모금 캠페인을 앞두고 나무심기의 설레임을 들먹이게 된 것은 해마다 추진되는 <100인 기부 릴레이>를 기획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지침현상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이다. 누군가를 위해 나눔의 손길을 펴는 것에서 누군가를 위해 나무를 심는 설레임을 느낄수는 없는 것일까 비교해 본다.

한국여성재단은 올해에도 5월 한 달을 집중모금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나눔의 손길을 찾아 나선다. 금년도의 <100인 기부 릴레이>는 네 번째의 행진으로서 이 대열에는 이미 1만명이 넘는 릴레이 주자들이 줄 서 있다. 이들은 자기가 기부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부를 권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단의 귀중한 친구들이다. 이들중에는 지난 3년동안 이어서 달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작년 처음 참여한 이들도 있다. 여기에 금년에 또 새로운 친구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존재한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함께 우뚝 설수 있는 성 평등사회건설, 빈곤여성과 여성가장 그리고 어린 가장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가정과 직장을 함께 지킬수 없는 직장여성들의 고충해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당면문제해소, 21세기 여성의 세기에 대비한 여성리더십양성등 차별을 없애거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일을 비롯해서 정부가 못 다 하고 있는 여성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